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024.10.20 (574호)

2. 아침묵상

수요성경공부가 시작되는 동안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아침묵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며 목요일 아침에는 수요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3. 종교개혁주일&창립주일

다음 주일(10월 27일)은 종교개혁주일이자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당일은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창립주일을 대신하겠습니다.

4. 교우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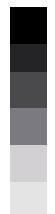
10월, 11월 중 한국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전한 여정을 위해 중보하며 서로 안부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비례크로마지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지난 주 (10/13) 현금 통계

선교구제 현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현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45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기도 Prayer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9장 10-27절

말씀선포 Sermon

예수와 나

*찬양 Praise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0월 27일(창립주일)

Chris Choi

11월 3일

서경열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목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인간의 위로나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라 하십니다. 복음 전파는 한번의 외침으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제자와 증인된 삶을 명령하셨습니까? 답을 분명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로 결론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 열매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신비적으로 체험해서 얻어내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즉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자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피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고치고 귀신을 내어 좋은 능력을 주셨다고 중언합니다. 그 능력은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처럼 신유의 역사나 귀신축사의 능력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과 표적을 찾을 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이 내용이 왜 다르게 서술되고 있을까요? 이유는 누가복음의 목적과 마가복음의 목적이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지팡이는 나의 지팡이를 의미하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했고, 마가복음의 지팡이는 주님의 지팡이를 의미하기에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권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로 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널지라는 음성에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 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큰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쓰는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익투스를 그리스도를 믿는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큰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지팡이 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